S 칼텍스



코로나19로 텅 빈 관중석...여자배구, 126일 만에 무관중 경기

송고시간 | 2022-02-23 19:53

















임순현 기자 기자페이지



무관중으로 진행된 프로배구 여자부 한국도로공사-현대건설 경기

[촬영=임순현]

(김천=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올 시즌 흥행몰이 중인 프로배구 여자부 경기에서 관중 함성이 사라졌다.

23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경기는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으로 치러졌다.

평소 배구 팬들로 붐볐던 김천실내체육관은 관중 출입문을 모두 폐쇄하고 선수 출입구만 개방한 채로 올 시즌 최고의 매치로 꼽히는 두 팀의 경기를 치러야 했다.



프로배구 여자부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것은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126일 만이다.

공교롭게도 무관중으로 치러진 마지막 경기도 김천실내체육관 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1라운드 맞대결이었다.

지난 9일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선수가 대거 발생하면서 프로배구 여자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정규리그를 중단했다.

21일 리그가 재개됐지만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한국도로공 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23일과 27일 홈 경 기를 무관중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체포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신' 기네스북 등재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리그 재개 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경기를 치렀던 선수들은 관중이 없는 이날 경기에선 마스크를 벗고 코트에 섰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은 사라졌지만, 1위 현대건설과 2위 한국도로공사 선수들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현재 승점 79인 현대건설 선수들은 승점 3을 추가해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한다는 각오다. 반면 역전 1위를 노리는 2위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1세트를 25-22로 가져간 한국도로공사가 2세트에서도 10-8로 앞서고 있다. h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2/23 19:53 송고 #프로배구 #여자부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시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뜴 결국 우크라에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뭐하고 놀까? ## 😛 →

유튜브채널 연임뉴스











sns **f**





Ö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뉴스+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계약사/제휴문의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관련사이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외국어